



지친 일상에 사랑 가득한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매년 10월 용인시 기흥구 죽전로15번길 11-8일대 '보정동 카페거리'는 이국적이지만 낯설지 않은 할러윈축제로 들썩인다.

할러윈축제는 2010년에 처음 열렸고 올해 10회째를 맞이한다.

작년 9회째 행사에서는 10월 27일부터 5일간 무려 3만 여명 이상 카페거리를 찾아와 축제를 즐겼다.

보정동 카페거리 상가번영회를 중심으로 한 주민들은 특색있는 프로그램들로 거리 전체를 꾸몄다.

서울 이태원과 신촌, 홍대 입구를 제외하곤 드문 축제 소재인 만큼 주민들은 5일 동안 이곳을 마치 영화세트장을 걷는 듯한 분위기로 조성했다.

가로수를 이용한 장치 및 장식물들로 주변을 새롭게 꾸몄다.

더 많은 호박등과 보정동 카페거리 아이콘인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현수막·포스터로 이국적 신비감을 높였다.

참여할 만한 행사도 풍성했다는 평가다.

할러윈 복장을 하고 참여한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할러윈 콘테스트가 열렸다.

밤에는 나이트 마켓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 교환하며, 판매원들은 모두 할러윈 복장으로 축제 분위기를 돋웠다.

할러윈 페이스 페인팅, 피어로 풍선쇼, 탈인형 기구행진 등도 진행했다.

매장을 가진 상권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요인이었다.

모든 매장에서선 직원들이 분장을 한 채 어린이를 위한 시탕과 과자를 무료로 나눠줬다.

또 포토존을 설치해 누구나 색다른 경험과 참여를 추억할 수 있도록 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보정동 카페거리처럼 차별화된 문화가 자족도시의 다양성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외부 관광객들을 끌어모을 수 있도록 테마축제 개최를 돕겠다"고 밝혔다. ▼

